

도 8조원 시대 성패, 신규 66개 사업·1933억 국비 확보 관건

도, 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국회·국책기관 협의 본격 진행
최지사, SOC 사업 예산확보 주문

속보=강원도가 2022년도 국비 목표액을 도정사상 최대규모인 8조원(본지 1월19일자 2면)으로 설정한 가운데 목표달성 성패를 가를 '66개·1933억원' 규모 신규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4일 오후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 주재로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국비확보를 위한 실국별 주요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국비목표액은 8조원 규모

다. 올해 확보액(7조2150억원) 대비 7850억원 상향됐다.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과 뉴딜사업 중점 추진 등을 감안, 신강원 전략 마련을 위해 최소 8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보육 등 복지예산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625개 사업, 2조9307억원 규모의 '주요 국비확보 대상 사업(1차)'을 선정했다.

이기우데 사업추진이 확정, 국비 확보 규모가 사전 예측된 계속사업(559개·2조7374억원)과는 별개로 정부를 설득해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신규사업 66개(1933억원)를

8조원 목표 달성의 과제로 도는 보고 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강원형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50억원) △무연탄 활용 인조흑연 소재화 실증사업(50억원) △특수목적용 드론 클러스터 조성(30억원) △희토류 공정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 생산 실증사업(20억원) 등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내 발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한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각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 다양한 국책기관과 예산협의를 본격 진행, 2022년도 예산 8조원

2022년 국비확보 목표액 신규사업 현황



2022년 국비확보 목표액 원안 총 8조원
국비보조사업 4조원
SOC사업 1조6000억원
도내 투자 주요국책사업(정부·공공기관) 2조4000억원

주요 신규사업 현황	
전통명주 산업 문화 종합단지 조성	280억원
국가고시 출제센터 건립	1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84억원
수출농산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70억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선도사업	71억원
무연탄 활용 인조흑연 소재화 실증사업	50억원
플라즈마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50억원
액화수소드론 활용 무선양자통신 시스템 구축	15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

시대 개막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도역점사업인 강원형 뉴딜사업과 연계한 각종 클러스터 사업, 주요 교통 SOC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클래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가 열린다.

박명원 kdpmw@kado.net